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등학생의 영어듣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26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권 은 경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

고등학생의 영어듣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종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26일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권 은 경



권은경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26일



주 심 영문학박사 정 해 룡 (인)

위 원 영문학박사 권 영 희 (인)

위 원 교육학박사 박 종 원 (인)

목 차

Abstract	iv
I. 서론	1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2 연구문제	4
1.3 연구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2.1 듣기 능력	5
2.2 듣기이해의 과정 및 중요성	8
2.2.1 듣기 이해의 과정	8
2.2.2 듣기이해의 중요성	10
2.3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
2.4 듣기 교육의 중요성	15
III. 연구 내용및 방법	17
3.1 연구 참여자와 사례연구	17
3.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20
3.2.1 자료 수집	19
3.2.2 자료 분석	20

IV.연구 결과	22
4.1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2
4.1.1 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의 부재	24
4.1.2 전체적인 의미 파악의 어려움	29
4.1.3 어휘	31
4.1.4 기억의 용량	34
4.1.5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연계 학습의 결여	42
4.1.6 새로운 구문 파악의 어려움	44
4.1.7 듣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머뭇거림	46
4.1.8 발화속도	47
4.1.9 주변 환경	49
4.1.10 원어민 발음	50
4.2 영어 듣기 교수와 학습방법	52
V.결론 및 제언	56
5.1 결론	56
5.2 제언	58
참고문헌	60

표 목차

<표 1> A의 영어 평가 능력 점수	18
<표 2> B의 영어 평가 능력 점수	18
<표 3> A와 B의 영어평가능력 평균 점수	18
<표 4> 학습자가 파악한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23
<표 5> 중요도 범주별로 본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affect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of high school students.

Kwon Eun-Kyo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in high school students and find research methods students and teachers doing for the best teaching methods and learning strategies of the English listening. This thesis employs a qualitative case study of two high school students' inner monologue. Data were collected over a ten month period from written documents, audio-recordings, interviews of the students, observations of teachers, and a research methodology journal. According to their activity participation rate,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and examine difference between two students.

Looking at diverse range of interactional contexts, this study provided contextually loaded explanations of why and how listening comprehension is not easy. Participants nominated linguistic factors, learning factors, psychological factors and strategic factors as hampering their current learning processes as well as product.

These factor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hirty-seven main factors

that affect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which are listed into eighteen categories.

Among these factors, absence of the appropriate listening teaching was extended to their current learning situation.

From the results, these factors tried to understand issues and concepts in pedagogical research that are related to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appreciate factors that might make listening difficult for students.

Finally, this study showed that these results and suggestions provided for better English listening comprehension of high school students.



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영어의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영어의 기본적인 목표가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게 되었다. 의사소통이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데 그 중요성이 있으므로, 듣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사소통이 성립될 수 없다(김동규, 2010). 또 유아의 언어습득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듣기가 말하기, 읽기, 쓰기 등에 선행하여 습득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기르기 위해서는 듣기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듣기기능은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Slobin, 1985). 그러나 이러한 듣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듣기는 다른 네 기능에 비하여 수동적인 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영어 교수 학습에 있어서 오래 동안 등한시되었고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이효웅, 2001). Brown(1990)은 듣기활동을 단순히 수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대화의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적극적인 청자는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음으로 무엇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Asher(1969)는 어린이의 모국어 습득과정에서 말하기 능력을 발휘하기 전에 듣기 이해력을 기르고, 어린이가 부모의 명령형태의 말에 따라 행동으로 반응함으로써 듣기 이해력을 기르며, 일단 듣기 이해력이 숙달되면 그다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됨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온 듣기 이해 관련 교육 연구는 듣기 과정을 매우 상세화하였다. (Flowerdew와 Miller, 2005; Hinkel, 2006; Mendelsohn, 1998; Rost, 2005; Vandergrift, 2003, 2004).

따라서 교사는 먼저 학습자가 듣기를 할 때 관찰되어지는 면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 이후에 학습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듣기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된 이래 영어 듣기 평가 문항이 1997학년도부터 17문항으로 늘어나고 학교 시험에도 듣기평가가 1년에 4차례가 실시가 되면서 고등학교에서는 듣기학습을 중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영어교사와 학습자들은 영어 듣기 시험 및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에 의한 영어 듣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적절한 학습과 교수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듣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는 하면서도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것이 사실이다(김영미, 2002). 현병만(2000)에 따르면 한국의 초, 중, 고 영어 수업시간의 평균은 45분 30초인데 비해 듣기에 사용된 시간의 평균은 겨우 2분 17초로 전 수업 시간의 5.8%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들어감과 동시에 문법과 독해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영어를 따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아침자습시간 10분과 일주일에 한번 있는 원어민 교사의 수업이 전부이다(A와 B의 인터뷰 참조). 영어를 모국어나 제

2의 언어로 배우는 환경에서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많고, 교실 밖에서도 매일의 일상생활 언어로 영어를 접하게 되어 언어에 대한 입력이 충분히 주어지지만, 한국과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상황에서는 영어에 대한 노출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교실 수업을 통한 인위적 학습 환경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와 교사가 효과적인 영어 듣기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후행연구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O'Malley, Chamot와 Kupper(1989)는 성공적인 듣기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비교하는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성공적인 듣기 학습자는 앞으로 듣게 될 내용을 추측하고 예측한 내용을 듣는데 집중하며, 듣기 활동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통제하고 점검해 나가는 특징을 발견했으며, 비 성공적인 학습자는 듣기학습에서 집중력이 약하고 익숙하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학습자에 비해 언어자료가 주어질 때 스스로 조직화 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줄 알고 부족한 부분은 추측을 한다거나 다른 기억수단들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Rubin과 Tomson(1994)은 외국어 학습의 성공은 학습자의 행동이나 전략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학습자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학습전략들을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듣기 학습영역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 듣기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2) 보다 효율적인 듣기 학습을 위한 교수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연구자가 듣기와 관련한 가능한 모든 변수를 개방하고,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연구문제도 연구자가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료 검증과 분석을 한 뒤 연구 참여자와의 연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검증 되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도출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고등학생의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연구 문제2. 최적의 영어 듣기 교수와 학습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1.3 연구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자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작성한 일기와 인터뷰, 연구자의 관찰일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진솔한 생각을 담고자 하였으나, 연구의 특성상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2009년 10월 4주부터 2011년 3월까지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의 영어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학년별이 아닌 전체적인 특성에 기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외국어로서의 영어 교육 듣기 영역에서 관련 학자들이 파악한 1) 듣기 능력, 2) 듣기 이해의 과정 및 중요성, 3)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 듣기 교육의 중요성들에 관한 연구 결과물을 살펴보고, 후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관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각에서 관찰하고자 기존의 관련 문헌을 파악하여 해석해 보기로 한다.

2.1 듣기 능력

Rubin(1994)은 듣기는 화자가 표현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각적인 실마리나 청각기관을 통해 떠오르는 정보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활동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Richards 와 Schmidt(2002)는 듣기를 이해하는 것은 English as a Second Language(ESL)나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EFL)의 상황 속에서의 말하기를 이해하는 것이며 EFL 속에서 듣기를 이해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기대나 상황, 문맥, 배경지식이나 주제뿐만 아니라 단어와 문법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손성규(2003)는 문법과 배경지식을 듣기 교육의 결정적인 변수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한 학기 수업을 통한 두 집단의 성취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정하였다. 한편 실험과 통제 집단 모두에서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해 본 결과 면접 참여자 모두가 듣기의 장애요인으로서 단어를 가장 빈번하게 지목하였다. 그리고 듣기와 관련된 단어를 학습자 스스로 정리하고 자신의 것으로 습득할 때, 비로소 듣기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점을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듣기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어휘의 문제로만 규정짓는데 어휘가 듣기 능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변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종원(2003)에 따르면, 중, 고등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영어교육에서 듣기 교육이 주는 의미는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 나가느냐는 전략 제공과 효율적인 독해 교육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능력 별로 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교사의 경험에 기초를 둔 특유의 육감으로 언어 입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듣기 능력 발달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학습 능력이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학습 전략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연구에서 우수한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책략을 보고하였다(Rubin, 1975; Rubin & Thompson, 1982; Stern, 1975). Rubin(1975)은 우수한 학습자들의 특징을 태도(aptitude), 동기(motivation), 그리고 기회(opportunity)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First, The good language learner may be a good guesser.

Second, He is often willing to appear foolish in order to communicate and get his message across. Third, He will try

out his knowledge by making up new sentences, thus bringing his newly acquired competence into use ” (p. 43).

Rubin(1975)에 따르면, 성공적인 학습자는 훌륭한 추측자요, 의미 파악을 위해 틀리는 것을 감수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 O'Malley, Chamot와 Kupper(1989)는 중급의 ESL과정에 등록한 고등학생 중 8명의 효율적인 학습자와 3명의 비효율적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두 집단 간에 사용하는 전략을 비교한 결과 효율적인 학습자들은 비효율적 학습자보다 자기 점검(self-monitoring), 집중적 노력(elaboration), 추론화(inferencing)등의 전략을 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단어를 묶어 들으며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며 상향식 듣기 전략(bottom-up)과 하향식 듣기전략(top-down)사이에서 듣거나 말하기를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을 두 전략의 상호작용을 통해 원활히 해결해 나가는 점을 밝혀냈다.

Vandergrift(1997)도 성공적인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집단의 학생들을 비교하여 듣기 전략상의 차이를 발견 하였는데 성공적인 학습자가 상위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비성공적 학습자는 인지전략을 더 사용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학습자들의 듣기능력과 이해의 중요성에 관한 문헌의 언급은 많았으나, 참여자들만의 시각에서 자신이 스스로 부여하는 듣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Bodgan & Biklen, 1982; Lincoln & Guba, 1985; Patton, 1980; Jacob, 1988) 학습자들의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2 듣기 이해의 과정 및 중요성

2.2.1 듣기 이해의 과정

Anderson과 Lynch(1988)는 듣기 이해단계는 전달하는 의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사회 문화적 배경 지식 및 진행 과정상의 지식을 포함하는 도식적 지식 단계를 거쳐 언어가 사용되어지는 상황과 언어가 말하여 지는 상황을 포괄하는 맥락을 파악한 다음 음운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지식을 포함하는 언어 체계적 지식의 단계로 이루어지거나 그들 각 단계의 상호 교류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듣기 이해과정은 상향식 과정과 하향식 과정이 함께 작용하는 상호 작용 과정이라고 했는데, 즉 상향식 과정은 들리는 소리로부터 단어, 문법적 관계와 어휘적 의미로 올라가면서 메시지의 합성적 의미를 이해하게 되며, 하향식 과정에서는 청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에 대한 전반적인 예상에 비추어서 들리는 내용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듣기를 할 경우 하향식 과정과 상향식 과정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재희(1994)는 EFL 학습자가 영어 듣기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제 1단계는 소리의 흐름을 인식하는 단계로서

언어에 대한 약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제 2단계는 개별적 단어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말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제 3단계는 구나 굳어진 표현 등을 하나의 단위로 배우며, 입력에 대해 대한 약간의 이해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제 4단계는 언어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전에 들은 적이 없는 단어나 문장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단계이며, 일반적인 주제에 대한 내용을 기능적 측면에서 적어도 최소한 이해하는 단계이다. 제 5단계는 연결된 말을 이해하는 단계로서 들은 내용을 대부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나 구도 인지하고 소리 나는 대로 기억할 수 있는 단계이다.

Rivers(1968)는 듣기 이해를 위한 과정으로서 인지 단계와 선택 단계를 언급하였다.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구조의 이해, 시간의 연속, 논리적인 문법관계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는 음소, 리듬, 강세, 억양 등 음운론적 규칙을 인식하며, 낱말, 구, 어순 등 통사적 규칙을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낱말의 연결사, 문화 등 의미론적 규칙을 인식한다. 선택단계에서는 담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인 화자의 의도를 자동적으로 추출해 내는데 청취자는 개별적인 요소에 대한 의식적인 주의 없이 전달 내용을 추출하게 된다고 하였다.

Chastain(1976)은 듣기 이해를 구성하는 네 단계를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첫째, 언어의 중요한 음과 억양을 구별해내는 일, 둘째, 구두로 전해진 메시지를 인식하는 일, 셋째, 이해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청각 기억 속에 유지하는 일, 넷째, 화자의 말속에 내포된 내용을 이해하는 일 등이다. 위의 연구들을 통해서 듣기 이해의 단계는 구체적인 통사적 단계에서 의미 파악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먼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다음 언어적 분석의 단계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구별되

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2.2 듣기 이해의 중요성

모국어 습득과정을 보면 어린이는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하기 전에 그 언어를 많이 듣고 이해한 후에야 조금씩 말을 시작하고, 읽기, 쓰기 등의 전반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나 말하기에 앞서 듣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당시에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훗날 Asher(1969), Postovsky(1974)의 주장으로 이어진다.

Asher(1969)는 일단 듣기능력이 능숙해지면 그다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외국어 습득에서도 이와 유사한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Postovsky(1974)는 초보단계에서는 처음부터 말하기 연습을 한 학습자들 보다 말하기 연습을 늦추고 듣기 연습을 많이 한 학습자들이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귀에 들어오는 입력을 처리하고 말로 표현하는 두 가지의 상호 연계적인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러시아어 학습 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듣기이해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다른 집단은 습관형성을 위한 구두연습에 치중한 수업을 하였다. 이 수업결과 초기에 구두연습을 강요하지 않고 듣기이해연습을 한 집단이 듣기이해력은 물론이고, 발음과 문법 면에서도 통제집단보다 뛰어났음을 발견하였다.

Nord(1980)역시 듣기 능력 우선 교육을 주장하였고, Krashen(1985)

은 “침묵기”라는 표현으로 이해가 발달되는 시기를 인정했는데 이 시기는 듣기 언어자료를 통하여 이해력을 쌓아 가는 과정으로 듣기 이해를 통해 언어 능력이 생기면 구두수행능력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Krashen과 Terrell(1983)의 듣기 우선 접근법은 인지적, 감정적 장점은 물론 효율적이고 의사소통적이며 미디어에 적합하고 활용성이 높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J. O. Gary 와 N. Gary(1981)는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언어 교육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도 의사소통 중심교육에 의거한 7차 교육과정에 읽기와 문법 영역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듣기, 쓰기, 말하기 영역이 늘어나게 되면서 수동적이라고 여겨졌던 듣기의 기능이 의사전달능력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듣기 기능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듣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듣기에 관한 연구는 너무 광범위해서 현직 교사를 포함한 영어 교육 담당자들이 듣기를 이해하는데 혼란을 야기해 왔다. (전병만, 박기표, 2001).

2.3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민경과 차경애(2007)는 학습자 수준에 따른 듣기 전략과 이해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첫째,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상위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을 다른 전략 유형보다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학생들의 듣기 능력 수준을 상위, 중위,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간에 사용하는 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학습자의 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 주었으

며 특별히 상위권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빈번히 상위인지 전략, 정의적 전략과 인지 전략의 세 가지 전략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상위 집단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상위인지 전략과 정의적 전략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도록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듣기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영어교육이 단순한 듣기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의 전이 역할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Rubin(1994)은 듣기 자료, 대화자, 듣기 과업, 청자, 그리고 청해 과정의 특성 등을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첫째, 듣기 자료의 특성으로서는 발화 속도, 머뭇거림과 휴지, 지각 수준, 음운 변화, 강세와 리듬 유형의 지각, 제1언어와 제2언어의 차이, 통사적 변형, 중복, 형태론적 복잡성, 어순, 시각적인 보조 등을 들고 있다. 둘째, 대화자의 특성으로는 성별 차이가 듣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셋째, 듣기 과업의 특성으로는 듣기 과업의 형태를 말하고 있다. 넷째, 청자의 특성으로는 목표 언어의 유창성 정도, 기억력, 주의력, 정의적 요인, 나이, 성, 배경 지식 등이 듣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듣기 과정의 특성으로는 상향식과 하향식 그리고 두 과정의 상호 작용 등이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Boyle(1984)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청자의 요인, 화자의 요인, 듣기 자료와 매체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듣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청자의 듣기 연습, 경험, 영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와 정도라고 보고 있다. Van Dazer(1997)는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자, 화자, 내용, 시각적 보조 등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적극적인 청자는 대화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배경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내

용이 익숙하거나 친근감이 있을 때 이해는 더 쉬우며, 사람의 몸짓, 얼굴 표정, 신체 언어 등의 시각적인 보조는 이해력을 크게 높여 준다고 말한다. 한편, 화자가 사용하는 구어나 축약형 등은 듣기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가 청자에게 많을수록 이해능력이 커진다고 설명한다.

한편 이수진(2004)은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미국식, 영국식, 한국식 영어 발음이 듣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며, 화자의 목소리에 대한 친숙도가 듣기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듣기 과정을 정보 처리 이론적 관점에서 본 Moates와 Schumacher(1980)는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자원(resources)과 자료(data)로 보고 있다. 여기서 자원이라 하는 것은 청자의 주의용량, 단기 기억의 용량 등을 말하며 이러한 자원들은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자료는 말 그대로 듣기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안수웅(1995)은 청해 과정을 정보처리 이론적 관점에서 보았다. 그에 따르면 듣기는 음향적 신호로 되어 있는 입력 정보가 청자의 마음에서 의미로 전환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여과 장치가 정보를 차단하면 듣기가 실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를 차단하는 저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는데, 외국어 학습시 듣기의 실패원인으로 1) 정의적 요소, 2) 음 변화 현상, 3) 통사적 복잡성, 4) 의미적 비 친근성, 5)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통해, 통사의 복잡성이 한국 학생들의 영어 듣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고, 이러한 통사의 복잡성을 대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 더 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Brown(2000) 또한 통사적 형태가 청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였으나, 통사적 구조가 듣기 저해 요인이

라는 주장과는 달리, Blau(1990)는 통사구조가 학습자들의 듣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통사의 복잡성과 듣기에 대한 연구를 한 Long(1985)에 따르면, 비 원어민 화자들은 변형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문장 구조를 사용한 강의보다는 통사적으로 덜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고, 바꾸어 말하기, 재언급 등을 포함하는 외국인 말과 같은 형태의 강의를 더 유의미하게 잘 이해했다고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Belasco(1965)는 변화 음이 듣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처음으로 지적하였는데, 변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Wells(1982)가 말하는 ‘최소 노력의 원리’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가 정상적인 발화에 있어서 전체적인 발음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조음기관을 움직여 최대의 목적을 얻으려는 노력의 경제성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두 개 이상의 언어음이 연속될 경우에는 가능한 조음이 수월한 방향으로 발음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동화, 탈락, 축약 등의 음운 변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 음은 정상적인 발화에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청자에게는 이러한 변화 음이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청자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언어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Avery & Ehrlich, 1992; Ahn, 1987; Henrichsen, 1984; Wolfram & Johnson, 1982; Herschenhorn, 1979; Morley, 1976; Bowen, 1975; James & Mullen, 1974; Belasco, 1965).

2.4 듣기교육의 중요성

영어 교육학에서 듣기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듣기가 이론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박기표, 김상문, 2002). 듣기가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듣기는 언어 학습에 필요한 입력을 제공해 주는데 입력은 영어 학습을 설명해 주는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정보처리이론과 보편문법이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Mclaughlin et.al., 1983:White,1989). 한편, 듣기 교육이 다른 언어기 능보다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듣기가 다른 언어 기능에 미치는 전이효과 때문이다. 듣기 능력은 말하기뿐만 아니라 읽기, 쓰기 능력과도 관계가 깊으며 읽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언어 기능은 사고와 반응이 요구되는 수용적인 언어 능력이라는 점에서 상당 한 공통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차경환과 이명숙(1999)은 말한다. 더 나아가 Peterson(1991)은 모든 단계에서 듣기 교육이 다른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듣기 교육을 하는데 있어 초급단계에서 읽기 교육, 중급단계의 문법적인 교육과 고급 단계에서의 어휘와 관용적인 표현, 문화적인 교육을 포함하는 언어 교육에 듣기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At the beginning stages of language study, before students have learned to read well, it is by listening that they can have

the most direct connection to the meaning of the new language.
.....At the intermediate level, when students are refining the grammatical system of the language, listening can be used to stimulate awareness of detail and to promote accuracy. At advanced levels, when written language becomes of viable source of input, a regular program of listening can extend the limits of learners' vocabulary and use of idioms, and build their appreciation for cultural nuances.....” (P.106-107).

Vandergrift(1999)는 교사가 듣기 평가이외에 학생에게 듣기 연습을 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듣기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듣기는 다른 언어 기능에 전이 효과까지 가지는 중요한 기능으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듣기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후행연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으나 연구 참여자 관점의 결핍,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도 연구 참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내성의 목소리는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자료의 일반화와 수량화를 통해 같은 참여자라고 하더라도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한번 정한 범주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박종원, 2003). 또한 이러한 이분법에 기초를 둔 연구 방법은 그 결과를 선부른 일반화로 연결시킬 경우 다양한 변수를 탐구하는데 있어 분석의 깊이를 낮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고 Van Lier(1988)는 경고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의 정체성을 존중해 주고 이해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Ⅲ.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 참여자와 사례연구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여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앞으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두 여학생은 A와 B로 한다) 2009년 10월 4주부터 2011년 3월(2010년 3월~7월 제외) 까지 참여자들의 동의아래 관찰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듣기를 할 때 태도나 반복되는 행동들을 사전평가를 통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관찰이 끝난 후 연구자는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비교 분석 하면서 연구 참여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준비하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두 참여자들과 상호 유대관계를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어 나가기 위해 과외수업 이외의 친밀한 관계모색을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참여자가 연구자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두 명의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각각 학교와 사설 어학원을 다니면서 영어수업을 한 경험이 있었고 학교 내의 내신평가에서 1-2학년 내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비슷한 점수를 획득하였고(표1, 표2, 표3 참조), 영어단어급수 시험에서도 거의 동일한 점수를 받았으나 학기에 한 번씩 치러지는 영어 듣기 평가에서 A는 최고 100점과 최저 85점, B는 최고 55점과 최저 45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였고,

2009년 고1 3월 모의고사의 듣기 영역에서 A는 25점 만점에 19점, B는 6점이라는 확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듣기를 제외한 영어평가능력이 비슷한 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듣기능력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르는 결과를 도출해 나가기 위해 연구를 시작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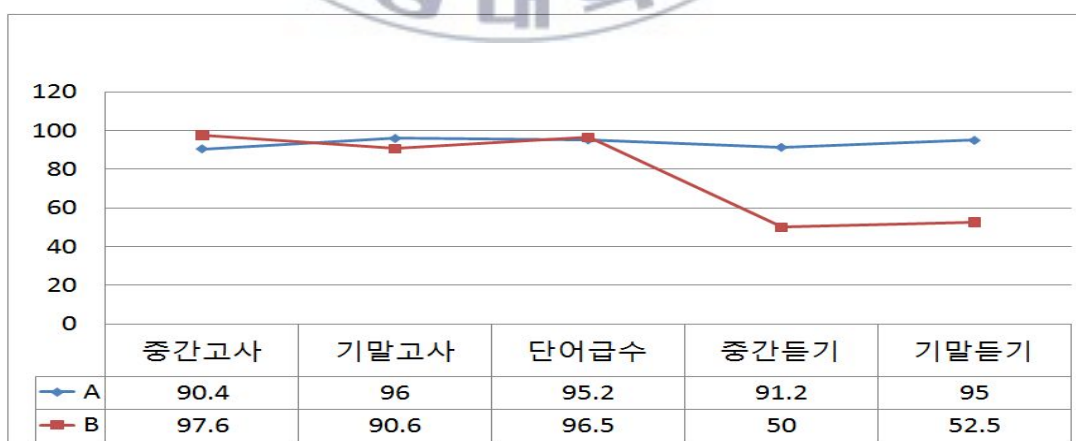
표 1. A의 영어평가능력 점수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단어급수	중간듣기	중간	기말	단어급수	기말듣기
1학년	75.9	91.0	100	85	97	97.5	100	100
2학년	97.2	97.2	87.0	90	91.5	98.5	94.0	90

표 2. B의 영어평가능력 점수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단어급수	중간듣기	중간	기말	단어급수	기말듣기
1학년	97	73.4	100	45	97	89	100	55
2학년	96.7	100	96	50	100	100	90	50

표 3. A와 B의 영어평가능력 평균 점수



3.2 자료 수집 및 분석

3.2.1 자료수집

2009년 11월 12일에 시행된 수능 외국어 영역의 듣기 평가를 통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제를 푼 직후 연구 참여자인 A와 B에게 듣기 평가의 오답을 설명 하면서 두 사람의 듣기 능력에 따르는 이해와 습득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듣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라는 일반적인 질문을 시작으로 첫 번째 인터뷰가 이루어 졌고, 이후 참여자가 말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의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후행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와 그 후의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이 강조하여 말한 점들을 메모하여 영역을 분석하고 정교화 된 질문을 준비하여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두 참여자의 경우 A는 24회, B는 30회의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두 참여자들의 듣기학습의 장애요인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후 학생들은 곧바로 11월 4주부터 ‘수능만만’이라는 듣기평가 문제집을 일주일에 한 회씩 풀도록 하고 점수를 매긴 직후에 일기를 적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원어민 교사의 수업을 듣고 느낀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자유롭게 메모하여 이메일로 보내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매주 두 번씩 있는 수업에서 한 달에 한번 준비한 듣기 자료들을 준비하여 시험을 치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도중에 어떠한 점이 관찰되는 지 관찰일지를 적어 나갔다. 또한 문제를 풀고 점수를 매긴 후, 학생들

이 각 문항에 대한 듣기의 내용과 어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통해 관찰하였다. 이는 사전평가를 통해 두 집단 간의 출발선상이 같다는 것을 보여 주고, 인터뷰, 연구자의 관찰 일지, 참여자의 일지,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 이에 따르는 후행연구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3.2.2 자료 분석

사전평가의 채점기준으로는 문제의 답을 맞힌 개수와 시험을 친 직후에 듣기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인터뷰를 통해 검증한 결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부여된 과제 또한 문제를 푼 양과 학생들의 일지를 통해 연구 대상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성실히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철저히 점검되었으며, 각 답변을 통해 비교하였다. 두 명의 학생들의 관찰일지와 인터뷰를 통해서 본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먼저 제시하고 인터뷰의 녹음한 내용을 전부 녹취하고 분석하여 관찰일지를 적고 인터뷰 질문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녹취한 자료와 동영상, 일지 및 기타자료들을 문서화하여 입력하는 과정은 Nvivo 9을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고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상위구조와 하위구조의 텍스트로 나누고 그 텍스트에 해당하는 코딩의 이름이 참여자에게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면서 신뢰도를 높였으며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중요도가 높고 참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언급이 많이 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 분석, 그리고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다(Maxwell, 1996).

비록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조건들을 줄이고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자료들을 담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고 다듬어 나가면서 참여자의 시각에서 출발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4.1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문제 1. 학습자가 생각하는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37가지로 지적하였다. 37가지 요인은 좀 더 큰 개념인 네 가지 도메인으로 묶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1)언어적 요인, 2)학습적 요인, 3)심리적 요인, 4)전략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표 4는 연구 참여자가 파악한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37가지 효과적 또는 저해 요인이다. 표 5는 표 4의 37가지 요인들 중에서 특히 빈도수와 코딩수가 높은 18가지 요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모아놓은 것이다. 아래의 자료들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일지, 인터뷰, 관찰일지, 동영상자료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던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두 명이 동시에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또한 연구 참여자 한 명이 여러 가지 듣기의 장애요인이나 효과요인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Nvivo 9를 사용하여 검토한 연구 결과물들이다. 아래의 표 4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적 요인(42%)과 학습적 요인(40%)을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심리적 요인(12%), 전략적 요인(6%)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표 4. 학습자가 파악한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주요요인	하부요인	코딩수	빈도(%)
언어적 요인 (9가지)	어휘, 기억의 용량, 새로운 구문파악의 어려움, 발화속도, 원어민 발음, 목표어만 반복하는 원어민교사의 대화, 내용파악 시간부족, 전체적인 의미 파악의 어려움, 연음에 대한 이해 부족	79	42
학습적 요인 (12가지)	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의 부재,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연계학습의 결여, 듣기 점수 오답으로 인한 사기 저하, 학습의 시간부족, 수 개념의 부정확함,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듣기 능력 편차, 선택적 듣기의 어려움, 듣기 자료의 과다노출로 인한 복잡함, 무의미한 자기 주도 학습, 선행 학습의 여부, 어렸을 때의 듣기 학습 여부, 반복적 학습의 지루함	72	40
심리적 요인 (10가지)	재미 여부, 친숙함, 사회문화체험, 듣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머뭇거림, 자신감결여, 경청의 부족, 긴장감, 수동성, 열린 마음의 어려움, 주변 환경	22	12
전략적 요인 (6가지)	집중력의 여부, 선택지 미리 파악하기, 들은 후 정답확인, 상황 예측, 메모하는 습관, 말하는 사람의 어조파악	11	6
합계	37	184	100

표 5는 중요도 범주별로 살펴 본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세부요인들을 18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연구자는 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1)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의 부재, 2) 전체적인 의미 파악의 어려움, 3)어휘, 4) 기억의 용량, 5)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연계 학습의 결여, 6) 새로운 구문파악의 어려움, 7) 듣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머뭇거림, 8) 발화 속도, 9) 주변 환경, 10) 원어민 발음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

들의 시각에서 먼저 살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표 5. 중요도 범주별로 본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요도 범주	항목	코딩수	빈도(%)
1	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 부재(학습적 요인)	32	20
2	전체적인 의미 파악의 어려움(언어적 요인)	18	11
3	어휘(언어적 요인)	17	11
4	기억의 용량(언어적 요인)	11	7
5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연계학습의 결여(학습적 요인)	10	6
6	새로운 구문 파악의 어려움(언어적 요인)	10	6
7	듣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머뭇거림(심리적 요인)	9	6
8	발화속도(언어적 요인)	7	4
9	주변 환경(심리적 요인)	6	4
10	원어민 발음(언어적 요인)	6	4
11	자신감 결여(심리적 요인)	5	3
12	연음에 대한 이해 부족(언어적 요인)	5	3
13	듣기 점수 오답으로 인한 사기 저하(학습적 요인)	5	3
14	학습의 시간 부족(학습적 요인)	5	3
15	어렸을 때의 듣기 학습의 효과(학습적 요인)	5	3
16	집중력(전략적 요인)	3	2
17	선택지 미리 파악하기(전략적 요인)	3	2
18	무의미한 자기 주도 학습(학습적 요인)	3	2
총합계	18	160	100

4.1.1 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의 부재

제가 아무 노력도 안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듣기문제집도 사서 들어 보고 풀기도 하고.....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풀려고 노력하는데 혼자서 문제 푸는 것까지는 괜찮아요.....근데 많이 틀리면 다시 덮어 놓고.....틀려도 듣기대본을 다시 본다거나 하진 않죠.....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해석 하는 것도 힘들고.....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했다가 안했다가 하니

까 꾸준히 하지 않고.....

(2009년 10월 B의 인터뷰1)

연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3월-8월까지 관찰을 하지 못하고 9월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두 참여자에게 5개월 동안 어떠한 듣기학습을 하였냐는 질문과 함께 이전에 풀었던 듣기평가 문제집을 확인했는데 A는 관찰이 멈춘 시점부터 9월까지 문제집을 풀지 않고 있었는데 이유를 물었더니 A는 다른 영어 공부를 하기도 빠듯한 시간이었다고 하였고, B는 혼자서 문제집을 풀긴 했지만 듣기 문제집을 어떻게 푸는 것이 효율적인지 몰라서 자신의 듣기실력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다.

(2010년 9월 A와 B의 관찰일지4)

.....대본보고 다시 들어 보고 하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해서 잘 안 보게 되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구문이나 쉬운 구문 같은 것도 반복해서 틀리는 것 같아요. 원어민 수업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들으면 듣기는 늘 것 같은데 ‘방금 저게 무슨 말이었지?’ 하는 것도 그냥 넘어가니까 가끔씩 답답할 때가 있죠.

(2010년 12월 A의 인터뷰3)

.....적어도 세 네 번은 들어야 정확하게 내용도 파악할 수 있고 내용도 적을 수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리고 혼자서 하면 힘들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사실은 힘들다.....

(2010년 12월 B의 일기2)

학교에서는 매일 듣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수업에서는 듣기 수업 잘 안하고 문법이나 독해 수업만 하고.....과제를 제대로 내주는 것도 아니고.....솔직히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집에서 듣기 공부 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2010년 12월 B의 인터뷰3)

나는 항상 그렇다. 답일 것 같은 것에 먼저 체크를 하고 나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일쑤이다. 그런데 듣기를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들어야 하고 무엇을 배제하고 들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으려고 해서 그런가? 그런데 학교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회의 문제는 그림이라서 그게 소용이 없는 건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듣기에 대한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잘 친다는 건 무리이지 않는가?

(2011년 2월 B의 일기1)

.....내가 잘 모르는 문장은 들으나 마나다. 몇 번 씩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대본을 보면서 문제를 풀 당시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들었을 때보다는 낫지만 과연 이 방법이 다음의 듣기 평가에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2011년 2월 B의 일기2)

잘 들리지 않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듣기방법에 대해서 써놓은 많은 책들을 보면 자주 듣고 잘 안 들리는 단어나 문장을 받아쓰기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학교 때나 고등초반정도까지 해당되는 것 같다. 우리처럼 이제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듣기에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다.

(2011년 2월 B의 일기3)

우리처럼 이제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듣기에 소비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방법인 것 같다. 그리고 듣기 받아쓰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왜 학교에서는 미리 이러한 방법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2011년 2월 A의 일기2)

듣기평가는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다른 영역에 비해서 듣기의 성적을 올리려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한 걸까? 말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오히려 나는 듣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 말하기는 내가 외운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데 듣기는 공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막막하다.

(2011년 3월 B의 일기4)

듣는 거랑 읽는 거랑 좋아하긴 한데 매일 듣거나 읽진 않아요. 그래도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이나 원어민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듣기 수업을 거의 안하니까 아무래도 읽기 수업과 학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듣기는 매일 들을 시간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 지 모르니까 더 안하는 것 같긴 해요.

(2011년 3월 A의 인터뷰4)

위의 연구자의 관찰일지를 살펴보면 B의 경우 방학동안 꾸준히 듣기 문제집을 풀었고 듣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늘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자 고심하는 흔적이 일지를 통해 역력히 드러난다. 또한 B는 선행 듣기학습을 통해 자신만의 듣기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스로의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이고 듣기에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다. 또한 처음에 문제를 풀거나 들었을 때 잘 들리던 것이 다음에 학습하고자 했을 때 이전보다 잘 들리지 않거나 문제를 푸는데 있어 오답이 높을 경우에는 이 전략에 대한 불안감 및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어 시간이 갈수록 듣기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는 떨어지고 실제 영어 듣기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꾸준히 학습하지 않고 듣기의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위의 일지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자들은 다른 영어의 기능을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자신만의 전략이 있지만 듣기영역에서는 이에 따르는 적절한 지도책이 없어 듣기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방학동안 듣기에 대한 학습을 거의 하지 않은 A에 비해 B의 경우 듣기 전략 사용의 비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학습을 한 후 나타난 전략 사용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적절하고 확실한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정원과 조민철(2003)의 연구에서 듣기능력이 떨어지는 학습자들은 전략 훈련을 사용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듣기의 내용을 의미단어로 나누어 장기 기억 속에 있는 정보와 연관 지어 이해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A와 B의 일지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듣기 학습에 대해서 자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과연 그들 자신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 학습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했던 것은 듣기가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구체적인 듣기 방법을 학교에서는 제시해 주지 않고 듣기에 대한 수업도 안하면서 듣기가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라고만 해서 답답하다고 한다.

4.1.2 전체적인 의미파악의 어려움

모의평가를 한 후에 A에게 자신의 듣기 저해 요인이 무엇일까 물어 보았더니 단어의 부족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A는 부분적인 단어나 관용적인 표현을 모르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B는 자신이 아는 단어 몇 개로 의미를 추론 하거나 단어에 집중하다가 전체적인 의미파악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2009년 11월 A의 관찰일지1)

모의평가를 한 후 B에게 자신의 듣기 저해 요인이 무엇일까 물어 보았더니 B는 단어파악의 부족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듣기를 해 보면 B는 자신이 모르는 단어나 아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들어서 정작 전체적인 의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B의 관찰일지1)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중요한 정보만을 머릿속에서 찾아 듣고 답해야 하는 문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정보의 바다에서 중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A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여 들으려고 하지만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라며 난감해 했다.

(2010년 1월 A의 관찰일지2)

B도 마찬가지로 글의 목적이나 전체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였다. B는 이러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오면 처음부터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음에 나오는 문제의 선택지를 파악한다고 한다.

(2010년 1월 B의 관찰일지2)

B는 자신이 영어 듣기를 할 때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듣기의 오답률이 높고 전체적인 내용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백은의 인터뷰에서 백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듣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어라고 했지만 실제로 백은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 모르는 단어에 신경을 쓰기보다 대화의 내용에 더 중점을 두어 듣기이해의 과정을 거쳐 답을 도출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연수의 경우에는 부분적인 단어에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필요한 정보를 잘 파악하지 못해 듣기의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4.1.3 어휘

어쩌다가 성적 잘 못나오면 듣기 좀 들어볼까 하고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듣는데.....아는 단어 몇 개 들리고 그다음엔 계속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바로 다른 생각에 빠진다거나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거나 하죠..... 독해 할 때는 단어가 보이는데 듣기 할 땐 단어가 안 들려요.....그래서 많이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2009년 11월 B의 일기 1)

.....근데 저는 위의 문제 풀다가 잘 모르 겠거나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밑의 문제 잘 못 보겠던데.....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귀로 들으면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그리고 평소에는 그 단어를 발음하면 알겠는데 이상하게 듣기 할 때 발음하면 다르게 들려요.....

(2010년 9월 B의 인터뷰2)

가끔씩 모르는 단어나 구문이 나오면 내가 듣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게 되요. 독해 같은 거 하면 그래도 다시 그 지문을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듣기는 한번 잘못 듣거나 놓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제 방식대로 추측하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앞의 문장이나 단어 모르던 거 생각하다가 그냥 획 지나가면 틀릴 경우가 많고 그래요.

(2010년 12월 A의 인터뷰3)

그리고 듣기에 나오는 단어는 독해에서 보는 단어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독해할 때는 분명히 이런 뜻이었는데 듣기 할 때는 그 뜻이 아니고.....단어가 안 들리니까 문장도 안 들리고.....듣기는 한번만 들려주니까 넘어가면 그 뿐이잖아요.....그래서 그런지 대화하는 거 빼고 혼자서 얘기하거나 하는 문제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0년 12월 B의 인터뷰3)

.....잘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대충은 알 것 같아요.....단어를 몰라서 듣기를 못하는 것 같은 거는 선택지에서 잘 모르는 단어 고르는 거 있잖아요.....그거 말고는 듣는데 잘 모르는 단어 때문에 듣기에 영향이 가거나 하는 것 같진 않은데.....듣는 거랑 읽는 거랑 좋아하긴 한데 매일 듣거나 읽진 않아요.....

(2011년 3월 A의 인터뷰4)

듣기를 방학동안 꾸준히 했는데도 고등학교 3년 내내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아니라 떨어지는 느낌이다..... 단어라도 좀 외워두어야 할 것 같다.....

(2011년 3월 B의 일기2)

.....근데 저는 들으면 그 단어 뜻이 뭔지 알겠는데 단어시험치거나 본문해석해 보라고 하면 철자나 내용이 자꾸 틀려요. 학교 선생님이 얼마 전에 해석해 보라고 했는데 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막상 얘기해 보라고 하면 잘 모르겠어요. 듣기도 들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2011년 3월 A의 인터뷰4)

만약에 제가 단어를 잘 알면 계속 들었겠지만 들어도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단어랑 독해를 더 잘하게 되면 그때쯤이면 속도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2009년 12월 B의 인터뷰1)

연구 참여자 모두 자신의 듣기 능력의 저해 요인을 어휘의 부족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A는 사전지식이나 어휘의 예측을 통하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단어의 의미에 먼저 초점을 맞추기보다 사전지식을 활용하여 들려주는 텍스트를 해석하는 활동을 잠재적으로 하는 반면 B 또한 마찬가지로 듣기의 장애 요인을 단어로 보고 있었으나 A의 경우와는 다르게 단어의 의미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내용을 추측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듣기의 저해 요인을 단어가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언어처리론에 의해서 상향식 처리와 하향식 처리과정이 담화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학습맥락에 있어서는 단어나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는 상향식 처리과정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위의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이 듣기에 대한 자동적인 언어처리를 하는 능력을 개발시키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4.1.4 기억의 용량

답지를 보니 뒤의 말을 잘 듣지 못했다. 나는 항상 그렇다. 답일 것 같은 것에 먼저 체크를 하고 나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일쑤이다. 그런데 듣기를 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들어야 하고 무엇을 배제하고 들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들으려고 해서 그런가?

(2011년 2월 B의 일기1)

.....원어민 영어회화 수업을 할 때나 라디오 방송이나 미드(미국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머릿속에 그 상황들을 떠올려 보거나 그 상황을 그려 봐요.... 그러면 기억이 잘 나는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그거 하나만 모른다고 그 내용 전체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그러니까 거기에만 집중하진 않아요. 대신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보는 거죠.....독해할 때 주제를 찾는 문제 처럼요.....

(2010년 10월 A의 인터뷰2)

듣기평가를 잘 치기 위해서는 우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평소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영어듣기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 졌을 때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내용도 빨리 파악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도 단어가 하나씩 하나씩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전체가 텔레비전 볼 때처럼 머릿속에 쑥 쑥 들어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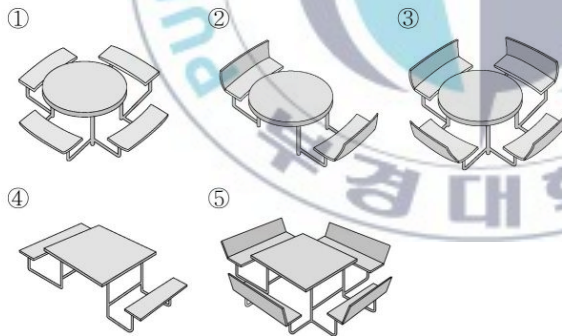
(2009년 11월 A의 인터뷰1)

사전평가에서 두 참여자의 듣기평가의 내용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A와 B 모두 1번과 5번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은 맞추지 못하였으나, 듣기를 하고 난 직후 각각의 내용을 시간이 지난 후에 질문을 하였을 때 A는 기억을 되살려 문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대답을 한 것에 반해, B는 아래의 대화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들리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지만 의미화 하여 내용으로 연결 짓는 것을 어려워 하고 들은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제한된 지면으로 인해서 A와 B의 사전평가에 대한 인터뷰는 1번과 5번에 대한 것만 나타내도록 하겠다).

(2009년 11월 사전평가 직후 관찰일지)

2009년 11월 사전 평가

1. 대화를 듣고 알맞은 그림을 찾으세요.



M: Hey, Linda. Did you find a website that sells picnic **tables**?

W: Yeah, come over here. Here' 's one that has some.

M: Wow! They have a good selection. What kind of table should we get?

W: I think a square one is better than a **round** one.

M: Hmm. But I think a round one would be safer for the children.
W: You' 're right. Look here. These even have rests for the back.
M: That' 's great. Having rests for the **back** will be more comfortable.
W: Then, let' 's look at only those.
M: OK. I think we should go with the one that has two seats.
W: But the one with four seats would be better when we invite guests over.
M: I agree. Then, let' 's order this one.

5.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총 금액을 고르시오. [3점]

- ① \$180 ② \$190 ③ \$220 ④ \$250 ⑤ \$290

[Phone rings.]

M: Good afternoon, Continental Bus Lines reservations.
W: Hi. My family and I are planning to travel from Boston to Philadelphia. How much is the fare?
M: The standard fare is **100 dollars per person**. How many people will be traveling?
W: Two adults and one child. Do you have a discount for children?
M: Yes. Children from ages 2 through 11 get **40% off the standard fare**.
W: Oh, **that' 's too bad**. My child is 13. Then, do you have a

discount for senior citizens?

M: Yes, we do. We have a discount of **10% for people over 65.**

W: **That' 'll work.** My mother is 70.

M: Would you like to go ahead with the reservation?

W: Yes, please.

(A의 인터뷰)

연구자: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니? 몇 번 몇 번 문제가 어렵니?

학생: 가족 수를 묻는 거랑 가격 묻는 것이 어렵던데요. 6번도 어렵고.....

연구자: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학생: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애매한 단어가 나와서 조금 난감했어요.

연구자: 그 단어가 뭐였는데?

학생: back인가? 그게 뭐 편할 거란 얘기한 거 같은데.....그게 혹시 등반이 맞아요?

연구자: 그래, 등반이라는 단어 몰랐어?

학생: 네.....그냥 막연히 추측해서 골랐는데 맞네요.....(웃음)

(중략)

연구자: 나머지는 다 들었는데 왜 머뭇거렸어? 5번이 무슨 내용이지?

학생: 어디 가서 티켓을 사러 가는데.....

교사: 총 가족 수가 몇 명이었지?

학생: 세 명

연구자: 티켓당 가격은?

학생: 100달러요.

연구자: 그다음엔 무엇을 들었지?

학생: 아이가 40%할인되고.....어른이 10%인가 할인이 되는 것 같은데.....

연구자: 다 들었네.....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학생: 근데 나이가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연구자: 나이? 그래.....마지막에 That'll work라는 말이 있었거든?그건 무슨 뜻이지?

학생: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자: 이게 있잖아.....아.....적용됩니다..라는 뜻이거든?

학생: 아.....그래서 마지막을 잘 몰라서 틀렸나 보네요.....

연구자: 근데 그걸 몰라도 마지막에 어른 나이가 70세라고 했잖아.....그러면 앞의 구문을 몰라도 문제가 풀렸을 텐데.....

학생: 그 That'll work 라는 말이 뒤의 70세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할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학생: 이거는 신경 쓴다고 못 들었어요.....

연구자: 5번 신경 쓴다고?

학생: 아니요.....그냥 신경 쓰여서요.....

연구자: 아! 이거 동영상 찍는 거 신경 쓴다고?

학생: 네.....(중략)

(2009년 11월 A의 듣기평가 직후 인터뷰)

(B의 인터뷰)

연구자: 자, 1번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였지?

학생: 탁자 파는 거요

연구자: 그래서?

학생: 등받이 있는 걸로 고른다고.....

연구자: 등받이가 뭔데?

학생: back.....

연구자: 그러면 선택지가 좁혀지네..... 그럼 중에서 등받이가 있고 그다음에 식탁모양은?

학생: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나요.

연구자: (한 번 더 듣기 대본을 읽어준다).

학생: 아 ! round.....둥근 거.....아깐 안 들리던데?

연구자: 아까 처음 들었을 때는 왜 안 들린 것 같은데?

학생: 몰라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신경도 못 썼어요.

연구자: 빨리 지나가서 못 들은 거라 구?

학생: 그런 것도 있고 1번이니까 못 들었어요.

연구자: 1번인데 왜 못 들었을까?

학생: 원래 1번은 잘 안 들려요.....긴장도 되고.....

연구자: 그래, 알겠다.....1번에서 다른 건 안 들었니?

학생: 뭐 단어 몇 개 밖에 안 들려요. 아는 단어 몇 개 듣다 보면 획 지나가고 또 모르는 단어 몇 개 신경 쓰다 보면 획 지나가고 그래요.

연구자: 그럼 천천히 다시 들려주면 잘 들리니?

학생: 그렇지도 않아요. 방금 선생님이 들려 주셨을 때도 아는 단어 몇 개만 들리지 다른 것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사실 기억도 안나요(웃음)

연구자: 근데 식탁 파는 거는 알았잖아?

학생: 그건 선택지 그림 보고 대충 감으로 맞춘 거고 단어 몇 개로 유추해서 안건데요..... (중략)

연구자: 이제 5번 보자,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래?

학생: 뭐 여행 간다는 거 같은데.....그리고 reservation.....예약?

연구자: 그래, 그래서?

학생: 그다음엔 뭐 할인한다는 내용 같은데.....(2분여의 시간이 흘러감. 결국 시간관계상 내용을 얘기함)

연구자: 어디 가서 티켓을 사러간다는 내용이지? 총 가족 수가 몇 명이었지?

학생: 세 명

연구자: 티켓당 가격은?

학생: 기억이 안나요.

연구자: 대본 다시 읽어줌

학생: 100달러.

연구자: 그다음엔 방금 무엇을 들었지?

학생: 아이가 할인된다는 거였는데

연구자: 몇 % 할인된다고 했지?

학생: 4%

연구자: forty percents.....몇 %?

학생: 아.....40%

연구자: 그런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할인이 안된 다고 했던 거 같지?

학생: 안된 다구요? 할인이? 그런 말 없었는데.....

연구자: That's too bad.....My child is 13.....

학생: 아.....

연구자: 그래.....마지막에 That'll work라는 말이 있었거든?그건 무슨 뜻이지?

학생: 그런 말도 있었어요.....기억이 안나요.....난 못 들었어요.....(중략)

(2009년 11월 B의 듣기평가 직후 인터뷰)

연구자의 사전평가는 A와 B의 듣기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두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위의 연구자의 관찰일지와 A와 B의 사전평가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두 참여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는 모르는 단어를 주어진 정보와 시각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내용을 예측하고 추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론이란 필요한 정보를 관련지어 이해를 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A는 배경지식이나 언어적인 정보와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살펴보았던 일기와 사전평가의 인터뷰 내용에서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언어지식을 바탕으로 익숙하지 않은 언어정보를 추론하여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 같은 학습을 반복한 것이 A의 듣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B는 이와는 반대로 잘 모르는 단어가 들렸을 경우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어의 의미에만 집중하게 되어 듣기의 정의적인 면을 간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는 인터뷰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 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들리는 말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연역적 추리의 과정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단어에만 치중하거나 익숙한 단어에만 의존하게 되어 전체적인 의미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인해

주의집중을 하여 듣기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주어진 발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4.1.5 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연계 학습의 결여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이요? 뒤에서 친구들이랑 딴 짓 하는데요.....눈도 맞추기 싫고.....왜냐하면 나를 시킬 것 같은 공포감이.....(웃음) 근데 그게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그 수업은 말하기 수업 아닌가요.....

(2009년 11월 B의 인터뷰1)

.....듣기 시험 칠 때는 그게 안 되지만 평소에 듣기 문제집 풀 때 뒷부분의 받아쓰기 있잖아요. 그거 혼자서 해 보고 대본보고 다시 들어 보고 하는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도 하고 해서 잘 안 보게 되요.....받아쓰기해라.....많이 말하면 잘 들린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진짜 이게 도움이 될까요? 듣기는 듣기수업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010년 12월 A의 인터뷰 4)

.....학교에서는 매일 듣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수업에서는 듣기 수업 잘 안하고 문법이나 독해 수업만 하고.....대본 보면서 공부한다고 해도 그게 꼭 다음 듣기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그리고 듣기에 나오는 단어는 독해에서 보는 단어하고 좀 틀리 지 않나요?

(2010년 12월 B의 인터뷰 4)

단어를 외우거나 독해를 하거나 문법문제집을 푸는 것은 고등학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듣기는 내신평가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거나 반영이 된다고 하여도 전체 학기 성적에는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2010년 1월 A와 B의 관찰일지1)

말하기는 내가 외운 내용을 써먹을 수 있는데 듣기는 공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 막막하다.

(2011년 3월초 B의 일기 4)

A와 B의 인터뷰와 일지를 통해 두 사람 모두 듣기 활동은 듣기에만 국한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B의 말에 따르면 원어된 수업시간에도 자신이 듣기 학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 수업만을 한다고 생각하여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으며 정작 듣기를 어떻게 학습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독해시간에 보는 단어와 듣기를 할 때의 단어가 틀리고 발음도 다르다면서 듣기를 따로 학습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B는 단어시험을 칠 때 우리말 해석이 되어 있고 영어단어를 쓰는 시험은 성적이 우수하나 발음을 불러주고 영어단어를 쓰는 시험에서는 전체의 반 정도 밖에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B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함). 이유를 물었더니 독해를 위한 단어는 발음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발음기호가 아닌 외우기 쉬운 자신만의 방법으로 외우곤 한다고 한다. 또한 A는 독해와 문법과는 다르게 듣기 평가는 성적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듣기를 학습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1.6 새로운 구문 파악의 어려움

왜 이렇게 모르는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다.....부정인 것 같아서 안 산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뒤이어서 'I'll go for it' 이 나오는데 하겠다는 말인지 헷갈렸다. 답지를 찾아보니 그 문장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었다. 듣기를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지만 이렇게 연속해서 모르는 표현들이 나오면 황당하다.

(2011년 1월 A의 일기1)

영어 듣기를 할 때 A는 전체적인 의미를 먼저 예측하고 예측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여 텍스트의 종합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위의 A의 일기를 보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이해했음에도 'I'll go for it' 이라는 새로운 구문을 듣고 잘못 예측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지도 모른다. 이는 실제로 듣기를 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언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배경지식을 사용하여 듣기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신 평가에서는 그것만 나오니까 공부하면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는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고 잘 모르는 구문이 나오니까 잘 틀리는 것 같아요.

(2010년 12월 B의 인터뷰3)

몇 번 씩 들으니까 처음에 내가 들었던 것 보다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문장은 들으나 마나다. 몇 번 씩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2011년 2월 B의 일기2)

언제부터 이렇게 듣기가 어려워 졌을까? 나도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한때 듣기를 잘했던 것 같기도 한데.....모르는 구문을 익혀 두면 그건 안 나오고 또 다른 새로운 구문이 나오고.....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2011년 2월 B의 일기3)

어렸을 때 부모님이 영어는 어릴 때 해야 한다고 들으셨나 봐요. 제가 10살 때 인가 동네 근처에 있는 사설 학원에 일주일에 세 번씩 보내셨어요. 그때 학원에서 말하기 숙제랑 듣기 숙제를 내 주셨는데.....(중략) 듣기 숙제는 학원에서 매주 이야기 CD를 주면 그걸 10번씩 듣는 거였어요..... 그때는 듣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모르는 구문들도 많고 알아야 하는 구문들도 많아서 듣기를 하기가 더 힘들어 진 것 같아요.....

(2011년 3월 B의 인터뷰2)

인터뷰와 일지를 통해 A와 B의 경우 어렸을 때부터 영어노출의 기회가 있었고 B의 경우 A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영어의 환경을 접하였고 꾸준히 학습을 하였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A보다 B는 듣기에 대해서 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어렸을 때의 의사소통이 확립되기 전에 끊임없이 영어에 대한 노출의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듣기에 중요하긴 하

지만 이는 한정된 장소와 한정된 시간 내에 이루어진 학습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영어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는 보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모르는 구문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의견이 B에게는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4.1.7 듣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머뭇거림

어조, 장소, 상점 등 보기에서 막히면 문제 풀 때도 당황해서 시간을 뺏긴다. 그러다 보면 답을 못해서 틀리는 일이 많다.

(2010년 10월 A의 일기1)

눈으로는 문제를 보는데 머릿속에서는 그전에 뭐였지? 하고 자꾸 되새기는 것 같아요.....

(2010년 9월 B의 인터뷰2)

가끔씩 모르는 단어나 구문이 나오면 내가 듣는 것이 맞을까 틀릴까 고민하게 되요.....그러다 시간이 가면 또 틀리고.....독해 같은 거 하면 그래도 다시 그 지문을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듣기는 한번 잘못 듣거나 놓치면 끝이잖아요.....단어는 계속 보면 알겠는데 듣기 할 때 정답이 확실하지 않아서 놓쳤던 구문은 계속 안 보게 되니까 계속 그 부분은 틀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2010년 12월 A의 인터뷰3)

상대적으로 듣기의 이해도가 높은 A도 B와 마찬가지로 듣기를 할 때 정답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듣기의 정보처리를 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머뭇거리게 되면 텍스트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살펴 볼 수 있다.

4.1.8 발화 속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신경도 못썼었어요.....단어 몇 개 듣다 보면 획 지나가고.....또 모르는 단어 신경 쓰다 보면 획 지나가고.....

(2009년 11월 사전평가직후 B의 인터뷰)

어떤 문제는 전체의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고 지나간다고 한다. A와 B의 경우 둘 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집중을 못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A의 경우 거의 대부분 전체적인 내용이나 정답을 맞추는 데 있어 별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점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반면 B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문제는 모두 오답이 있었다. B는 들리지 않았던 내용을 천천히 속도를 늦추어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2009년 11월 A와 B의 관찰일지3)

미드 잘 안봐요, 한 번인가 네이버에서 영자신문 들려주는 것을 들어 본 적 있는데 너무 빨라요.....

(2009년 12월 B의 인터뷰2)

대화하는 거 빼고 혼자서 얘기하거나 하는 문제는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10년 12월 B의 인터뷰3)

위의 내용에 따르면 A와 B 모두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원어민의 발화 속도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A의 경우에는 자신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듣기를 이해하는데 있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B는 발화속도가 빠른 듣기의 내용이나 놓쳤던 부분은 처음부터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어서 B에게 발화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듣기대본을 들려주었을 때도 듣지 못했던 단어 몇 개를 맞추었을 뿐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발화속도가 연구 참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4.1.9 주변 환경

학생: 1번이니까 못 들었어요

연구자: 1번인데 왜 못 들었을까?

학생: 원래 1번은 잘 안 들려요.....긴장도 되고.....

(2009년 11월 B의 사전평가 직후 인터뷰)

2009년 11월 사전평가를 할 때 동영상촬영을 하면서 A와 B의 시험 칠 때의 특징과 습관적인 행동 같은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A는 아침자습시간에 듣기를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모의고사 시험이나

듣기평가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 잘 들리지 않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잘 들린다고 한다....

(2009년 11월 A와 B의 관찰일지 2)

평소에 A와 B는 집에서나 자습시간에 듣기문제집을 풀 때에는 긴장이 되거나 하지 않는데 듣기평가 시험 때나 모의고사 듣기시험을 칠 때면 항상 1번 문제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2009년 11월 사전평가를 할 때 두 사람 모두 듣기평가를 할 때 나타나는 습관적인 행동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A의 경우 보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진 않았지만 사전평가 직후 그리 어렵지 않는 1번 문제를 틀려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녀의 말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원어민 수업이요? 맨날 뒤에서 친구들이랑 딴 짓 하는데요.....눈도 맞추기 싫고.....왜냐하면 나를 시킬 것 같은 공포감이 들어서요. 저보다 영어를 더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혹시나 틀려서 망신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더 못 듣는 것 같아요.....

(2009년 11월 B의 인터뷰1)

학교에서 하는 문법위주의 영어 수업에는 그렇게 흥미를 가지진 않았지만 길 지나가다가 외국인을 보거나 라디오에서 영어 방송이 들리면 그들의 말을 더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언젠가는 내게 말을 걸어오는 외국인이 있겠지?' 하는 저 혼자만의 상상을 하고 다음부터 더 열심히 듣고 말하려고 하죠.....

(2011년 3월 A의 인터뷰1)

원어민 수업이 있을 때 마다 거의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B는 원어민 교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였을 때 잘 못 알아들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처음부터 친구들과 딴 짓을 해서 교사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A는 평소 문법위주의 수업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길에서 원어민을 만나거나 영어방송이 들리면 더 집중을 해서 듣고 흥미를 느껴서 듣기와 말하기를 더 잘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였다.

4.1.10 원어민 발음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귀로 들으면 잘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그 단어를 발음하면 알겠는데 이상하게 듣기 할 때 발음하면 다르게 들려요.....

(2010년 9월 B의 인터뷰2)

엄마가 잘 때 매일 10분씩 능률고등 영어 테이프인가 CD인가 틀어주고 그거 다 들으면 선물 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선물 받으려고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 전에 습관적으로 듣고 잤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들어가서는 잘 때 듣는 것을 끊었어요. 근데 저는 들으면 그 단어 뜻이 뭔지 알겠는데 단어시험치거나 본문해석해 보라고 하면 철자나 내용이 자꾸 틀려요.

(2011년 3월 A의 인터뷰1)

영화 볼 때 보면 영국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발음이 틀리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단어가 틀린 게
있으면 모르지만 내용은 이해가 되던데요.....

(2010년 2월 A의 인터뷰2)

이번에 듣기 평가를 하는데 영국식 발음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2011년 4월 중간 듣기 평가 후 A의 인터뷰)

B는 인터뷰에서 천천히 들려주는 단어나 구문들을 파악 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조금 빠르게 들려주거나 읽어주면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 어렵다고 하였다. 또 대화를 천천히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음성언어에서는 축약형의 대화가 많아서 이
러한 구문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가 음성적 축약형이나 통사적 축약형으
로 대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발음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영어의 운율적 특징도 내용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이 될 수 있다. 영어는 강세, 리듬, 억양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지 놓치기 쉽기 때문에(Brown, 2007) B의 경
우에는 귀에 들려오는 익숙하지 않은 원어민 발음의 연속적인 단어와 단어
군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또한 A의 2010년 2월의 인터뷰에서 듣기를 할 때 영국식 발음이 내용
을 파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으나 2011년 4월 듣기평가에서는
영국식 발음이 신경 쓰여서 집중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앞 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A의 경우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차이에 따라서 듣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2 영어 듣기 교수와 학습 방법

연구 문제2. 최적의 영어 듣기 교수와 학습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

듣기는 제가 혼자서 할 때나 가끔씩 학교에서 듣기 수업을 할 때도 왠지 재미없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선생님들이 듣기 수업한다고 하시는 게 단어나 문장 받아쓰기하거나 빈칸 채우는 문제밖에 안 해요.....그러니까 잘 안 듣는 거 같고.....솔직히 집에서 듣기 공부 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제가 틀리는 개수도 많고.....그거 다 대본 보면서 체크하고 하면 날이 썰 거예요.

(2010년 10월 B의 인터뷰3)

.....그래도 학교에서는 자습시간이나 원어민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듣기 수업을 거의 안하니까..... 교실에서 간혹 듣기 수업을 한다고 해도 계속 같은 구문만 반복해서 들려주고 받아쓰기 같은 것만 하고.....하나의 문장을 계속 들려주니까 지겹고 그것이 듣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011년 3월 A의 인터뷰3)

본 연구에서 A와 B의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듣기 학습이 필요하지만, 학생 스스로 듣기 학습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수업에서 교사가 적절한

듣기 전략을 강구하여 학생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인터뷰를 통해서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지적하였다.

- 1) 변칙적인 듣기 수업의 운영
- 2) 무의미한 자기 주도적인 듣기 학습
- 3) 듣기에 대한 학습과 교육의 부재

A와 B의 인터뷰에 따르면, 학급에서 교사들은 거의 대부분 듣기 수업을 하지 않거나 간혹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형 듣기 활동만이 유일한 수업방식이라고 말한다. 차경환과 이명숙(1999) 또한 듣기 수업에서 현직 교사들은 녹음기나 CD-ROM 교재를 사용하여 영화대본 또는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빈칸 채우기나 받아쓰기 방법을 사용하여 수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대답하였다. 물론 교사들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단어나 문장을 뇌리에 각인 시키면서 억양이나 강세, 축약형등과 같은 음성언어의 특정 요소에 주목하여 집중적인 듣기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듣기 활동은 두 참여자에게 듣기의 의미를 부여하여 수업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미한 듣기 학습이라고 할 수 없겠다(Nunan, 1991b).

또한 B는 스스로 듣기 학습을 하는 것이 정확하고 옳은 방법인지 알 수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듣기 공부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다. Oxford(1990)는 학습자는 듣기를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교사는 그런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실수업에서는 여전히 듣기에 대한 적절한

교수방안이 강구되고 있지 않음을 아래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윤결(2003)에 따르면,

“.....almost all training in oral communication in high school and college programs is in effective speaking. The teaching of listening has been superficially treated in language classes. There seem to be much fewer teaching materials for listening than for speaking and/or reading. This is because teachers comprehension processes are still not well understood and because teachers often assume that students will somehow develop listening skills naturally once they are taught speaking.....” (p.248).

영어 수업을 하는 학급에서 교사는 말하기와 읽기 수업에 대한 교수 방안보다 듣기에 대한 교수 방안은 현저히 부족하며 말하기 수업이 선행되면 듣기는 자연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자기 주도적인 듣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우선 학습자가 어떠한 듣기 전략을 세워 학습하는 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개별적인 처방을 해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인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매일 듣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수업에서는 듣기 수업 잘 안하고 문법이나 독해 수업만 하고.....

(2010년 10월 B의 인터뷰3)

아무래도 읽기 수업과 학습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듣기는 매일 들을 시간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 지 모르니까 더 안하는 것 같긴 해요.

(2011년 3월 A의 인터뷰3)

위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적절한 듣기 요령을 모르고 있는데, 이는 최근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말하기 및 듣기와 같은 음성 언어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계적인 듣기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고 읽기와 문법 위주의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대부분 듣기 학습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병만과 박기표(2001)는 듣기 교육을 실시할 경우 모든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듣기 교육을 받은 학습자들은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EFL)환경과 같이 교실 밖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학습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해 보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듣기 학습을 할 때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듣기 학습 방법에 의한 구체적인 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르는 적절한 학습과 교수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와 그에 따르는 연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37가지로 지적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은 1)언어적 요인(42%), 2)학습적 요인(40%), 3)심리적 요인(12%), 4)전략적 요인(6%)으로 좀 더 큰 개념인 네 가지 도메인으로 분석되어 이는 다시 빈도수와 코딩수가 높은 18가지 요인들로 나누었고, 중요도 범주별로 빈도수와 코딩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1)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의 부재, 2) 전체적인 의미 파악의 어려움, 3)어휘, 4) 기억의 용량, 5)언어의 네 가지 기능의 연계 학습의 결여, 6) 새로운 구문파악의 어려움, 7) 듣기의 모호함으로 인한 머뭇거림, 8) 발화 속도, 9) 주변 환경, 10) 원어민 발음으로 10가지를 선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일지와 인터뷰, 연구자의 관찰일지, 동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적절한 듣기 학습 지도 방안의 부재(20%)를 듣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이들 모두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듣기 전략을 세워서 학습을 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전략이 옳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습 방안이 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듣기 교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어 교사가 이처럼 새 교육과정에서 듣기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독해와 문법 중심의 수업만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정의적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영어 듣기 교수와 학습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일지와 인터뷰의 결과를 분석 해 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1) 변칙적인 듣기 수업의 운영, 2) 무의미한 자기 주도적인 듣기 학습, 3) 듣기 학습 방법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와 B는 듣기 수업을 거의 하지 않거나, 수업을 한다고 해도 받아쓰기와 같은 반복적인 듣기 학습은 무의미하다고 생각 하여 듣기 학습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영어 듣기를 지도하는 교사는 수업을 할 때 영어를 그저 들려주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양한 듣기 전략과 교수 방안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보다 더 쉽게 잘 들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 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효과적인 듣기 학습을 위해서 교사 자신이 얼마나 성의 있게 시간과 노력을 들이냐 하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2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두 명을 대상으로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듣기 전략이 아닌 교사의 듣기 전략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통해 소신을 가지고 가르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듣기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쳐 듣기 학습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얻어낼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이 미리 전략과 학습방안을 강구하고 검증할 것을 거친 후에 실행하여야 하며 듣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듣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그 후에 원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듣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하나에만 국한 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비단 듣기평가를 하거나 원어인 수업에서만 목표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자유롭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본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듣기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서든 듣기 이외의 영역이 분리되고 상호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학습자의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나가면서 수많은 수행변인에 집중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절한 듣기 학습을 위해 제시한 여러 가지 듣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만의 시각으로 그들이 제시한 수많은 자료를 통해 듣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학습자의 듣기 수준에 알맞은 듣기 전략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기자재의 활용과 수업 방법을 연구하여 공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김동규. (2010). ESL학습자들의 국가 지역별 영어듣기 전략 비교 분석.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129-134.
- 김영미.(2002). 영어 듣기 향상을 위한 저해요인 분석. *영어교육연구*, 25(1), 25-27.
- 박기표, 김상문. (2002). 영어지식과 듣기전략의 사용이 영어 듣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14(1), 97-108.
- 박종원. (2003).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영어 교육과 질적 연구. 한국문화사.
- 박종원. (2011). 질적 자료 분석: NVIVO 9 응용. 형설출판사.
- 성기완. (2003). 영화 속에 나타난 영어교수 방법의 분석. *STEM*, 4(1), 3-22.
- 손성규. (2003). 문법과 배경 지식의 활성화를 통한 듣기 지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안수용. (1995). 영어 청해력 저해 요인의 정보처리 이론적 분석. *영어교육*, 50(2), 181-207.
- 이수진. (2004). 영어 발음의 지역적 차이가 한국 고등학생의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미국식, 영국식, 한국식 영어중심으로. 국제 영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정원, 조민철. (2003). 듣기전략 훈련이 영어듣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육*, 58(2), 67-80.
- 이재희. (1994).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듣기 지도 및 평가 모형. *영어교육*, (48), 189-210.

- 이효웅. (2001). 대학생의 영어듣기 책략과 불안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영어교육연구*, 13(1), 180-184.
- 임민경, 차경애. (2007). 대학생의 듣기 전략연구. *영어교육*, 55(3), 104-111.
- 정윤걸. (2003). Listening competence for Korean EFL students. *새한영어영문학*, 45(1), 247-267.
- 전병만, 박기표. (2001). 최근의 영어 듣기 연구에 관한 고찰. *Foreign Languages Education*, 8(1), 293-310.
- 차경환, 이명숙(1999). 중. 고교의 영어 듣기교육 현황 연구. *영어교육연구*, 11, 52-54.
- 현병만, (2000). 영어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비디오 오디오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Ahn, S. W. (1987). *Sandhi-variation and affective factors as input filters to comprehension of spoken English among Korean learners*.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Anderson, A., & Lynch, T. (1988). *Listen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very, P. & S. Enrich. (1992). *Teaching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Asher, J. (1969).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pproach to Second to Language Learning." *Modern Language Journal*, 53.
- Belasco, Simon.(1965). Nucleation and the audio-lingual approach. *Modern Language Journal*. 49, 482-489.
- Blau, Eileen K. (1990). The effect of syntax, speed. and pauses

- on listening comprehension *TESOL Quarterly*, 25, 746–753.
- Bodgan, R.C., & Biklen, S. K. (198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 Bacon.
- Boyle, J. P. (1984). Factors affecting listening comprehension. *ELT Journal*, 38, 34–44.
- Bowen, J. D. (1975). *Patterns of English Pronunciation*. Rowley, Mass: Newbury House.
- Brown, H. G. (1990). *Listening to spoken English* (2nd ed.). NY: Longman.
- Brown, H. D. (200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 Hall Regent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 Brown, H. D.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5th ed.). White plains, NY: pearson Education.
- Chastain, K. (1975). Affective and ability facto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5, 153–161.
- Flowerdew, J., & Miller, L. (2005). *Second language listening: Theory and practi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y, J. O., & Gary, N. (1981). Caution: Talking may be dangerous to your linguistic health. *IRAL*, 19, 1–14.
- Herschenhorn, S. (1979). Teaching listening comprehension using live language. In M. Celce–Murcia & L. McIntosh (eds.),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Rowley, Mass.: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 Henrichsen, L. E. (1984). Sandhi-Variation: A filter of input for learners of ESL. *Language Learning*, 34(3), 103–126.
- Hinkel, E. (2006). Current perspectives on teaching the four skills. *TESOL Quarterly*, 40, 109–131.
- Jacob, E. (1988). Clarifying qualitative research: A focus on traditions. *Educational Researcher*, 17(11), 16–24.
- James, K. & L. Nulsen. (1974). English as she is heard: Aur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foreign learners. *English Language Teaching Journal*, 28(1), 15–22.
- Krashen, S. D.,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Krashen, S. D., & Terrell, T. (1983).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 Hayward, CA: Alenany Press.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Long, M. (1985). Inpu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ory.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ss: Newbury House.
- Maxw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CA: Sage publications.
- McLaughlin, B., Rossman, T., & McLeod, B. (1983). Second language learning: An information processing perspective. *Language Learning*, 33, 135–158.
- Mendelsohn, D. (1998). Teaching listening.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8, 81–101.

- Moates, Danny R., & Gary M. Schumacher. 1980.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 Morley, J. (1976). *Listening dictation*.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Nord, J. (1980). Developing listening fluency before speaking: An alternative paradigm. *System*, 8, 1–22.
- Nunan, D. (1991b).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A textbook for teachers*. New York: Prentice–Hall.
- Oxford, R. (1990).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What every teacher should know*. New York: New Bury House.
- O'Malley, J. M., Chamot, A. U. & L. Kupper. (1989).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0, 418–37.
-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Peterson, W. (1991). A synthesis of methods for interactive listening. In Celce–Murcia, Murcia, M.(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106–122. Boston: Heinle & Heinle.
- Postovsky, A. (1974). Effects of delay in oral practice at the beginning of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odern Language Journal*, 58, 229–30.
- Richards, J. C., & Schmidt, R. (2002). *Dictionary of language teaching and applied linguistics*. London: Longman.
- Rivers, W. M. (1968).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ost, M. (2005). L2 listening. In E. Hinkel (Ed.), *Handbook of research in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pp.503–527).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Rubin, J. (1975). What the "good language learner" can teach us. *TESOL Quarterly*, 9, 41–51.
- Rubin, J. (1994). A review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resear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78, 199–221.
- Rubin, J., & Thomson, I. (1982).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Boston, MA: Heinle & Heinle.
- Rubin, J., & Thomson, I. (1994). *How to be a more successful language learner* (2nd ed.). Boston: Heinle & Heinle.
- Scarcella, R., & Oxford, R. (1992). The tapestry of language learning: *The individual in the communicative classroom*. Boston, MA: Heinle & Heinle.
- Slobin, D.L. (1985). *The cross-linguistic study of language acquisition: Theoretical issues*.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tern, H. (1975). What can we learn from the good language learner?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31, 304–318.
- Underwood, M. (1989). *Teaching listening*. New York: Longman.
- VanLier, L. (1988). *The classroom and the language learner*.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Van Dazer, C. (1997). Improving ESL learner's listening skills: *At*

the workplace and beyond. EIC, ED 406855

Vandergrift, L. (1997). The Comprehension strategies of second language listeners: A descriptive study. *Foreign Language Annals*, 30, 387–409.

Vandergrift., L. (1999). Facilitat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acquiring successful strategies. *ELT Journal*, 53, 168–176.

Vandergrift., L. (2003). Orchestrating strategy use: Toward a model of the skilled second language listener. *Language Learning*, 53, 463–496.

Vandergrift., L. (2004). Listening to learn or learning to listen?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3–25.

White. L. (1989). *Universal grammar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Wells, J. C. (1982). *Accents of English: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olfram, W. & R. Johnson. (1982). *Phonological analysis: Focus on American English*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